첫 번째 마음자리의 정의

(이사야 42:1~25)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마음자리의 정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첫 번째 마음자리의 정의'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네 편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4절까지에는 '정의'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서 오늘 제목을 '첫 번째 마음자리의 정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라볼 때에 목사님이나 교인들도 정치가들을 따라서 보수나 진보로 나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성향 때문에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진영을 선호하든 진보진영을 선호하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마음에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고 이루시고 세우시려고 했던 온전한 믿음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받아들여지면 보수나 진보의 정치인들을 특별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인해 주어진 온전한 구원이 내게 주어져 있는가를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받아들여지면 보수든 진보든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다보면 예산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장로님들은 헌금강조 설교를 강요하면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감사헌금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영락교회에 다닐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어른 예배도 드렸는데 "이번 부

활절 예산이 3억입니다. 평소 주일헌금이 1억인데, 3배 씩만 하시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헌금강조의 광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헌금강조 광고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헌금강조 설교를 부탁하는 장로님의 마음에 과연 예수님의 정의가 받아들여졌는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 드러나는 메시아의 정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이루신다는 말은 다소 낯섭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정의, 분배의 정의, 도덕적 정의, 정치적 정의가 거론됩니다. 본문의 이사야에서 말하는 정의는 모든 정의 위에 있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의를 통해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던 때에 헌금을 강조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 저의 마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의심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문 중에서 찾아봅니다.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 미슈파트(מִשְׁפָּט, mish-pawt')로서 '재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쉐파트(טָפַשׁ, shaw-fat')'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과는 다릅니다. 옛날의 재판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나누어진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왕이 하는 판단이 바로 정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정의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부에서의 정의란 객관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판단을 뜻하는 정의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 8절이 힌트를 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계시던 영원의 세계에서의 영광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영광과는 다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영광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만 빛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에 조명이 비추면 공연장에서 조명을 받은 사람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에게만 빛을 비추어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관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수많은 사실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을 젖혀두고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이 영광의 자리를 양보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외하면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자녀를 들여놓았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양보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돈을 들여놓았습니다. 돈 또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들도록 허락하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여놓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려는 정의는,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불의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스스로 있지 않은 것들을 들여놓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을 마음에 들여 놓습니다. 이것이 불의입니다. 사회적인 정의, 분배의 정의, 정치적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거론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 위에 정의입니다.
가족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담았다면 불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불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 상태는 정의이기에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신 상태에서는 가족을 대할 때에도 정의가 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정의가 됩니다. 비록 목사님이나 교황님이라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담았다면 모든 말과 행동 전체가 불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6~37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바가 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가족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담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배우자, 사업, 건강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세상을 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의심해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가족 회사 나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보면 누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알몸과 같은 알마음에서 ‘우리’는 내 몸과 가족들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본래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녀를 대할 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개념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묶인 채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며 가족과 대면하고 이웃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신 정의입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정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면 전도도 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3절에서도 같은 의미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의를 시행하려면 외쳐야 하고 잘못된 일들은 없애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석들을 보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엉뚱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를 세워 가실 때에 사역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실 때에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당장에 벼락으로 때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멸망시킨 것처럼 진멸시켜야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영광된 자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데,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살

아가고 있으니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건강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쫓아낸 뒤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치가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노가 떨어지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이 임해야 될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의를 시행하시는 방식입니다.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즉사시켜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을 사회적 약자나 심각한 병이 들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들은 이미 정의에서 벗어나 너무나 많은 불의를 행하였기에, 회복 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전적타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당장 심판치 않으시고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시행될 장소로써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전해주시려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맞추어진 대답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일은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를 두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자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리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할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재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 돈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함포고복하려 했으나 다음 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

석은 상태, 부패한 상태,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러움과 추잡한 상태를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실 정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돈을 달라고도 하지 않으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도 하지 않겠다. 네가 좋아하는 재물 그대로 다 놔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한 마디도 지적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돈이 들어온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계속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한 알마음이 된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다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정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관을 정의로 삼아 서로를 손가락질합니다. 이게 다 진정한 정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는 진보든 보수든 목사든 장로든 예술가든 사업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세상을 들여놓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통해서 알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리의 대상으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의 대상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정치인들을 보면 어떨까요?
보수든 진보든 그들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정의의 자리로 이끌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 마음에 의해서 따르게 될 것입니다.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이 정의의 자리로 이끄는 대신 헌금만을 강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교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마음은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만 합

니다. 병이 들었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베푸시고 이루시려고 하셨던 정의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서 시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